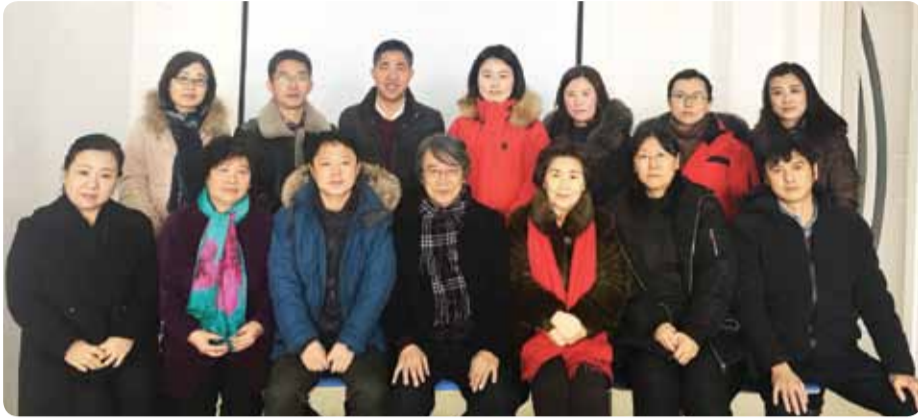


독자투고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분교장회의 열려



지난 주말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분교장 회의가 상하이 대학성에 위치한 본교강당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상하이, 장쑤, 저장 등 화동 지역에서 우리 민족문화 발전 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힘내시는 분교장, 학구장님들이 참석했다. 저장성 닙보, 주지, 이우 분교장님들은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려 왔다. 우리 민족 교육사업을 사랑하는 그들은 피로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열린 회의에서 교장 박창근 교수님이 새해의 학교사업계획, 한해 노력할 주요 목표, 진행하게 되는 4대 큰 행사에 관한 구상과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학교 교학 일정은 이전대로 1학기는 3월초에 개학하여 6월말까지 수업, 2학기는 9월초에 개학해 12월말까지 수업해 화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 후대들에게 우리말과 글, 우리 민족 전통 민속, 풍속습관을 포함한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해 학교 교학 노력 방향은 주로 유아반은 어린이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초등반은 어린이들의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학교 올 한해 4대 주요 행사로는 5월에 복단구시 연수학원 조선어반 설립 7주년 기념 및 제7기 장기 자랑모임행사이다. 분교 간 상호교류와 우의증진, 건전한 체능발전을 취지로 한다. 두번째 큰 행사로는 8월초에 진행되는 전교 교사가 참석하는 교사 연수회이다. 교사 간 상호교류, 우의증진, 교학질 제고에 초점을 두게 된다. 세번째 행사는 11월초에 열

리게 되는 한국어 낭독대회이다. 한국어 발음능력, 표달능력 향상, 우의증진, 상호교류에 초점을 두게 된다. 네번째는 12월초에 열리게 되는 학부모 회장 연수회로 자녀교육경험교류, 회장책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게 된다.



화동조선족주말학교는 설립 6년 이래 한국재외 동포재단의 지속적인 후원과 민족문화교육에 관심 있는 화동지구 우리민족 유지인사, 학자, 기업인, 교원,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다. 오늘날 상하이, 장쑤, 저장을 비롯해 화동지역에 40여개 학급에 300여명 학생을 가진 규모가 비교적 크고 학교운영이 정규화된 우리민족 어린이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지성인들의 지원과 관심, 교사, 학부모님들의 더욱 큰 열정과 노력으로 새로운 한 해에도 자랑찬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hdhzymxx2014@163.com

아줌마이야기

연우 아빠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연우 아빠를 참 좋아한다. 물론 연우 아빠도 나를 좋아한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우리의 첫만남은 난 무심했고 연우 아빠 그런 내가 이상한 옆집 형수였으니까. 이제 햇수로 15년 차인 나. 하지만 상하이에서 처음 시작한 청푸의 한 비에수엔 우리가 먼저 그리고 한 1년쯤 뒤 연우네가 왔고 그곳엔 한국가정이 우리 두 가정 밖에 없었으니 나중에 연우 아빠 말대로 어쩔 수 없이 교류할 수 밖에 없었다.

방실방실 웃는 나는 아니고 누나 형 밑에서 막내로 자란 연우 아빠 어디서나 관심을 받고 자랐을 터. 무심한듯한 옆집 형수님이 편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늘 함께였다. 갖돌 지난 연우랑 우리가족은 무엇을 하던지 같이 했고 그들 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삼촌과 숙모가 돼 주었다. 함께 발 안마를 받고 시토우(洗头)를 받고 같이 시장을 다니고 또 보이차에 빠져서 지우싱 보이차 시장을 누비며 다구들과 차를 장만하여 거의 매일 함께 차를 마시며 즐거웠고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했다. 그사이 연우 동생 호준이도 태어나고 아이들도 크고 많은 변화가 있고 세월도 이렇게 흘러갔으니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그다지 맘에 들지 않았던 고백을 할 정도로 연우 아빠와 허물없이 많은 정이 들었다. 남편에게 항상 형수님 말 잘 들으라는 소리를 해 핀잔을 듣지만 지금도 여전히 항상 형수인 내편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 나도 모르게 연우 엄마한테 시누이 같은 말을 해 연우 엄마의 어이없는 웃음과 남편에게 한 소릴 들곤 하지만 그래도 난 연우 아빠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보이기 참 좋다.

연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몇 달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막상 다가오니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다. 중국의 특성상 이민 제도가 없다 보니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도 누구나 이곳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이별은 늘 익숙하지 않다. 특히 나처럼 문어발 교제에 힘든 사람은 깊이든 정 만큼 마음의 빈자리가 작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해 떠나는 연우 아빠의 앞길을 위해 기도한다.

생활에서 시간들 특히 인생에서 아이들과 가장 소중하고 열심이었던 시기에 늘 함께했던 연우네를 잊을 수는 없겠지. 주위의 응원과 기도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이웃들과 더욱더 풍성한 삶이 계속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곳에 남아 있을 연우 엄마 연우 호준이와도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며 언젠간 만날 연우 아빠와 만날 기대를 꿈꾸며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연우 아빠를 응원해 본다.

pbdmom@hanmail.net



상해사범대학교 2018년도 모집요강

장기어학연수

가을 학기: 9월 17일 ~ 2019년 1월 18일
(7월 20일까지 신청마감)

- 일반중국어반: 입문부터 고급까지 총 7개 레벨(9,000원/학기)
- 비즈니스중국어반: 초·중·고급(9,000원/학기)
- 강화중국어반: 초·중·고급 (17,000원/학기, 교재비 포함)
- 월~금 20교시/주, 1교시 45분, 강화반(28교시/주)
- 제출서류: 입학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등록비 450원

※본 광고 제시 시 등록비 면제

비즈니스중국어 주말반 (중·고급)

2018년 3월 17일 ~ 2018년 7월 14일
(15주반)

- 매주 토요일 09:00~12:00 4교시 수업
(4월 7일, 4월 28일, 6월 16일 휴강)
- 수업내용: 비즈니스종합 / 비즈니스증례분석
- 등록비: 400원 (본 광고 제시 시 면제)
- 학비: 3,000원 (5명이상 개강, 수시입학 혜택)

유학생본과

2018년 3월 입학
2018년 3월 5일(일) 09:00 입학시험

- 전공: 중국어(汉语言)
- 세부전공: 비즈니스중국어
본과 1학년 1학기~본과 3학년 1학기 편입가능
- 등록비: 450원 (본 광고 제시 시 면제)
- 학비: RMB 19,800원/년

상담문의 021 6432 2824

上海市桂林路100号上海师范大学5号楼对外汉语学院206室 (우편, 200234)

E-mail: ywx@daum.net (한국어)
http://iccs.shnu.edu.cn